

중국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구 분	단기어학연수생		
성 명	서xx	학번 / 학년	2020xxxx / 3학년
소 속	미디어랩스 (단과)대학		중국학과
연 락 처	E-mail		
파견 대학	안휘중의약대학교		
파견 기간	2023년 06월 26일 ~ 2023년 07월 16일		
<p>본인은 순천향대학교 학생으로서 외국 대학에서 수학한 후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p> <p>붙임 : 1. 단기연수 체험기 1부 2. 기타 첨부 서류(사진)</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07월 23일</p> <p style="text-align: right;">파 견 자 : 서xx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순천향대학교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p>			

※ 단기어학연수 체험기※

1. 인적 사항(전공, 중국어 학습 기간 등)

중국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며 대학교에 와서 중국어를 처음 시작해 2년 반정도 되었습니다.

1. 수학 내용(과목, 수업 내용, 수업 방법, 교수, 과제, 평가, 수업 준비 등)

월~목까지 격일로 회화와 실용중국어를 수업했습니다. 회화 수업시간에는 자기 소개, 가족 소개, 하루 생활 루틴, 과일 구매 등을 수업했고 실용중국어 수업시간에는 성조와 병음 읽는 법부터 간단한 단어와 문장까지 구사하는 방법 등을 위주로 수업했습니다.

1. 교통(학교에서 주요 장소로의 교통, 시내 교통 등)

숙소에서 학교까지는 도보 15분정도 걸리고 택시를 이용하면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갔던 백화점은 학교에서 도보 5분정도 걸립니다.

1. 학교 안내(수학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우리 대학과의 상이점, 학교 규모 및 시설, 면학 분위기 등)

학교에 있는 시간이 짧았어서 학교를 모두 돌아보진 못했지만 사용했던 건물은 전반적으로 우리 학교에 비해 규모는 컸지만 오래된 만큼 노후되어있는 시설이 많았습니다.

1. 환경(위치, 학교 주변 환경, 기후 등)

숙소와 학교, 백화점 모두 인근에 위치해 이동이 편리했고 특히 학교와 백화점이 가까워 매우 더운 날씨에도 걸어갈만큼 가깝고 가는 길도 쉬웠습니다.

1. 숙소(시설, 규칙, 분위기, 유의사항 등)

주로 묵었던 숙소 시설은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쾌적하고 벌레도 나오지 않았다. 빨래도 무료로 가능한데 세탁기에 포함되어있는 건조 기능은 거의 작동하지 않으니 세탁만 한 후 방에서 건조하는 걸 추천합니다. 또, 일주일에 수건 교체를 1번하니 그 점을 유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음식(학교 식당 이용, 학교 주변 식당 현황, 가격 등)

학교 주변 백화점 내에 있는 식당들을 주로 이용했고 한국에 비해 매우 저렴한 가격에 이용 가능합니다. 한식집보다는 일식집의 덮밥, 카레 메뉴들이 한국인 입맛에 잘 맞게 느껴졌고 연수원들 모두 마라맛을 좋아해 휘귀집에 자주 갔는데 다들 갈때마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또, 해외에서 들어온 프랜차이즈 식당들은 한국보다 약간 높은 가격이었습니니다.

1.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제도(담당 부서, 담당자, 제공 시설 등)

한국어가 가능하신 담당 선생님께서 항상 같이 다녀주셔서 걱정이 없었고 타지역에 여행을 가서도 한국어가 가능한 가이드 선생님이 같이 다녀주시거나 한국어가 안되는 가이드 선생님이시라도 영어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1. 소요 경비(현지 물가, 항공료, 공공 요금, 총 소요 경비 등)

한국에 비해 현지 물가가 정말 저렴합니다. 특히 식당, 빵집, 카페 음료 등 먹을거리들이 한국 가격의 1/2 정도로 정말 저렴했고 백화점에 입점되어있는 해외 브랜드 의류 매장들은 같은 브랜드여도 한국 가격보다 비싼 편에 속했습니다, 항공료와 비자발급, 보험료는 총합 70만원 정도였고 생활비는 3주간 약 100만원정도 사용했습니다. 물가가 저렴한 편이긴 해도 해외를 나왔다보니 평소 한국에서 쓰는 거보단 많이 쓰게 되고 관광지 여행을 자주 가다보니 체험도 여러가지하고 기념품 구매 등에 적지 않는 돈이 들었습니다.

1. 문화 체험 및 기타 개인 관광

상하이의 동방명주, 디즈니랜드와 황산 여행 모두 너무 좋았습니다. 짧은 주말동안 최대한 많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해주신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일정들이었고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현지 음식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개인 관광으로는 야시장과 한국의 홍대같은 거리가 기억에 남았고 통금 시간이 있는게 아쉬울 만큼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아 재밌었습니다.

1. 출국 전 준비해야할 사항(반드시 소지해야할 것 등)

못먹는 음식이 많은 분들은 꼭 가방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소고기볶음고추장이나 좋아하는 소스류를 챙기는 걸 추천합니다. 또 여름에 간다면 배터리 용량이 큰 휴대용 선풍기는 필수입니다.

1. 귀국 준비 시 유의 사항

전날 캐리어 미리 정리하고 일찍 잠들기를 추천합니다.

1. 건의 사항

숙소 호텔 교체주기가 길었던 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1. 차기 단기연수 학생을 위한 제언

한국에서 미리 자유 관광시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계획하고 오는것을 추천합니다. 또 로밍이나 유심구매보다는 Esim 구매를 추천합니다. 가끔 개인계좌를 사용하시는 택시 기사님들이 계신데 알리페이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 꼭 적은 돈이라도 환전을 해오는 걸 추천합니다.

1. 단기어학연수에 대한 소감 및 평가(*자세히 작성)

실생활에서 쓰는 중국어를 현지인들과 쓰면서 회화에 대한 부담감과 걱정들이 많이 사라졌고, 개인 여행으로 오면 시간적, 체력적,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었을 여러 지역 관광, 문화체험 등을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하게 되어 장점들이 더 극대화되어 느껴졌습니다. 3주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하루 하루가 재밌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같이 갔던 연수원들도 떠나기 며칠 전부터 딱 일주일이라도 좋으니까 중국에서 더 생활하고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고 중국 생활에 적응되고 즐길때쯤 돌아가게 되어 아쉬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전공에 대해 더 흥미를

맞게 되었고 다음에는 더 긴 기간동안 연수를 가고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프로그램 참여였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전 주변 지인들로부터 중국에 대한 편견과 불편함들을 많이 들었던 터라 걱정되는 점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크게 안 느껴질 만큼 사소했고 적응되니 별 문제 없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몸소 느낀 것들이 다른 곳을 여행갔을 때보다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져서 다음 프로그램 참여는 더욱 주저없이 선택할 것 같습니다.

1. 사진 첨부(현지 생활을 소개할 수 있는 사진)





중국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구분	단기어학연수생		
성명	서xx	학번 / 학년	2018xxxx / 4학년
소속	인문사회과학 (단과)대학 경찰행정학과		
연락처	E-mail		
파견 대학	안휘중의약대학교		
파견 기간	2023년 6월 26일 ~ 2023년 7월 16일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학생으로서 외국 대학에서 수학한 후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붙임 : 1. 단기연수 체험기 1부
2. 기타 첨부 서류(사진)

2023년 7월 22일

파견자 : 서xx (인)

순천향대학교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 단기어학연수 체험기※

1. 인적 사항(전공, 중국어 학습 기간 등)

순천향대학교에서 경찰행정학을 전공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는 개인적인 관심으로 기초를 사전에 학습하였고 중국어 병음을 읽는 것을 중심으로 기초 공부를 하며 단기어학연수를 준비했습니다.

1. 수학 내용(과목, 수업 내용, 수업 방법, 교수, 과제, 평가, 수업 준비 등)

단기어학연수 동안 실용중국어와 중국어회화를 중점으로 어학 공부를 했습니다. 교재는 [실용중국어], [중국어회화] 각각 1권씩 총 2권의 교재를 중국 대학 측에서 교부해주셨고 격일 기준으로 하루에 한 과목씩 오전에 공부했습니다. 어학 연수 기간 동안 학습한 시간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목

- 실용중국어
- 중국어회화

2) 교재

- 실용중국어 교재(1권)
- 중국어회화 교재(1권)

3) 수업 방식

- 하루에 한 과목씩 오전 09시부터 12시까지 학습.
- 40분~50분 수업 이후 10분의 쉬는 시간을 가짐.
- 대체적으로는 11시 30분이면 오전 수업이 마무리 됨.
- 점심을 먹고 14시 30분부터 오후 일정이 진행됨.
- 오후 수업 시간에는 중국 문화 체험 활동을 했음.(서예, 부채 꾸미기, 가면 꾸미기, 전통 매듭 배우기, 상하이&황산 여행지 기본적인 설명 등)

1. 교통(학교에서 주요 장소로의 교통, 시내 교통 등)

주로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3km 이내로 움직인다면 10위안 정도면 택시비 비용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여름에 갔었기에 날씨가 더워 택시를 자주 이용했지만 숙소와 수업을 듣는 학교 그리고 번화가(백화점, 쇼핑점, 야시장 등)의 위치가 걸어서 20분 이내로 다닐 수 있기에 날씨가 선선하다면 큰 불편 없이 도보로도 충분히 이동 가능합니다.

버스 같은 경우 현금으로 2위안을 내면 이용 가능했습니다. 다만, 버스를 우리나라의 교통카드를 찍고 타는 것과 같이 중국은 쿼알코드를 찍고 타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경우 별도의 중국 교통카드가 핸드폰 앱(위챗페이 또는 알리페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교통카드를 발급하고 등록하는 절차는 자세히 알아봐야 하지만 단기어학연수로 관광비자를 받고 간 학생들이 중국현지 교통카드를 발급 받는 것은 쉽지 않은 걸로 기억합니다. 버스를 이용할거면

현금으로 2위안을 동전으로 준비해서 갖고 다니며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학교 안내(수학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우리 대학과의 상이점, 학교 규모 및 시설, 면학 분위기 등)

1) 학교시설(강의실)

순천향대학교와 비슷합니다. 에어컨이 있었고 칠판과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의실 내부에 따뜻한 물과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정수기는 따로 없습니다.(찬물 없음, 각자 개별적으로 준비해가야 함.)

2) 학교 시설(화장실)

양변기는 없으며, 푸세식 변기만 있음.

휴지는 개별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함.

화장실 환경은 일반적으로 한국 대학교 화장실과 비교했을 때 한국보다 열악했습니다.

1. 환경(위치, 학교 주변 환경, 기후 등)

강의를 듣는 학교의 위치는 숙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백화점 및 상가, 복합 쇼핑몰 등이 자리 잡고 있어 도보로 10분 거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백화점 및 쇼핑몰에서의 평균 식사 비용은 30위안이었으며 별도로 음료도 마실 경우 추가로 넉넉하게 20위안 정도 비용이면 마시고 싶은 음료는 웬만하면 다 마실 수 있었습니다.

허페이시의 여름 날씨는 무척 더웠습니다. 체감온도 40도가 넘어갈 정도로 무서운 더위를 보였습니다. 선크림은 필수로 발라야하며, 낮 시간대에 도보로 이동하면 땀도 많이 나고 더위에 지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택시로 15분 거리에 백조의 호수 공원, 허페이시 핫플거리 등 산책하고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기에 미리 파견 지역에 대한 정보와 본인이 가보고 싶은 장소를 찾아봐서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기어학연수를 통해 많은 경험을 하고 현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고 느끼고 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 숙소(시설, 규칙, 분위기, 유의사항 등)

숙소는 학교 인근 호텔에서 단기어학연수 기간 동안 지냈습니다. 조식이 매일 제공되었으며 조식 제공 시간은 07시부터 09시 30분까지였습니다. 숙소 환경은 매우 우수했습니다.

호실의 쓰레기통 정리와 바닥 청소는 매일 해주었으며, 수건과 일회용 칫솔은 일주일에 한번씩 교체해주었습니다.(수건은 개인적으로 여분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호텔에서 기본적으로 수건 2장을 제공해주지만 교체해주는 시기는 일주일 단위로 교체해주기 때문입니다. 현지 숙소 근처에서 얼마든지 수건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로 지낸 호텔은 24시간 출입이 가능하였고 호텔 방 키를 엘리베이터에 카드 찍는 곳에 찍고 나서야 객실 키 해당 층의 버튼을 누르고 올라갈 수 있는 점이 특이했습니다. 저희는 순천향대학교 선생님들께서 정해주신 숙소 규칙인 '22시 전에는 숙소에 들어오기'라는 규칙을 숙지하여 밤 10시까지는 숙소에 들어와 인원 파악을 했고 매일 단체톡방을 통해 인원 파악한 내용을 한국에 계신 선생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

1. 음식(학교 식당 이용, 학교 주변 식당 현황, 가격 등)

학교 식당은 별도로 없었고 강의실만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학교 안에 매점 또는 기타 음료나 생활용품을 살 수 있는 장소는 없었습니다. 대신 학교 주변 도보로 10분 거리로 백화점, 쇼핑몰, 음식점 등이 있었습니다. 백화점에 있는 식당에서 먹을 경우 평균적으로 30위안 정도 한끼 식사 비용으로 들었습니다. 중국 현지 식당 가격은 저렴한 곳은 12위안에서 20위안 사이면 한끼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에 고수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호불호가 있기에 고수를 싫어한다면 주문 전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빼고 주십니다.(미리 종업원에게 말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찬물은 구매를 해야 마실 수 있었고 기본적으로 따뜻한 물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1.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제도(담당 부서, 담당자, 제공 시설 등)

현지 파견 대학교 소속 한국 학생 담당자님(안휘중의약대학교 인문·국제교육교류대학 소속) 한 분이 매일 같이 있어주셨고 한국 학생들과 위챗 또는 대면으로 소통하며 현지에서 적응하고 생활하며 강의 듣는데 도움을 주십니다.

담당자님은 한국어도 잘 하셔서 소통에는 문제없었습니다. 현지 대학교 강의실에 따뜻한 차를 비치해두어 마실 수 있게 해주었고 오후 활동 간 필요한 교재나 기타 재료 등은 모두 해당 대학 측에서 준비해주었습니다. 안휘중의약대학교 인문·국제교육교류대학 부원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첫 주에는 강의실에 오셔서 저희들이 잘 적응하는지 살펴주시고 맛있는 과일도 따로 준비해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주 한국 돌아오기 하루 전에 특별히 중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셨으며 전통 옷과 중의약 관련 전통 향료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을 준비해주셨습니다. 경비는 학생들 부담이 전혀 없이 무료로 다녀왔으며 점심 식사도 푸짐하게 제공해주셨습니다. 학생들이 최대한 중국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 소요 경비(현지 물가, 항공료, 공공 요금, 총 소요 경비 등)

출국 전 한국에서는 단기어학연수 준비로 먼저 예치금 20만원과 항공료로 53만원을 납부하였고 비자발급비용으로 12만원, 보험료로 38,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현지 물가는 한국보다 저렴했으며,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매장인 스타벅스, 버거킹, kfc, 맥도날드 등의 매장은 한국과 비슷했습니다. 현지 택시비용은 한국보다 저렴하였고 차로 15분 정도 거리는 평균적으로 13위안 정도면 이동이 가능했습니다.(기본요금으로 10위안이었으며 거리에 따라 비용이 추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3km 이내는 택시비로 10위안이면 되었습니다.) 한끼 식사비용으로는 평균 25~30위안이 들었습니다. 중국은 차 문화가 발달되어 커피숍보다도 버블티나 과일 주스를 파는 곳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버블티&과일주스 비용은 한 개당 10위안~20위안 했습니다. 만약 점심을 백화점이나 쇼핑몰 안에 있는 식당에서 먹고 근처 카페에서 음료까지 먹는다고 하면 약 50위안 정도가 필요합니다~!(먹고 싶은 거를 먹는다는 기준으로.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에 식사비용은 각자 상황에 맞춰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 식사 비용으로는 적어도 15위안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주로 음료와 마실 물을 구매하여 마셨는데 물 500ml 비용은 2위안 이었고 1.5L 물은 4위안이었습니다. 컵라면은 10위안 정도 했으며, 전자레인지 조리 식품 같은 경우

12위안에서 18위안 사이였습니다. 아이스크림도 개당 10위안 정도 했습니다.(편의점 기준)

단기어학연수 기간 동안 금,토,일에는 허페이시 인근 주변 관광지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지에서 먹는 조식 중식 석식은 학교와 계약을 맺은 여행사 측에서 식당 예약을 미리 하여 다 제공해주었기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식사 비용에 들어간 돈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지로 이동하고 여행지 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버스와 기차로 단체이동을 하였기에 교통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숙소비도 학교 측에서 다 부담해주어 저희 학생들은 식사비, 교통비, 숙소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없었습니다. 식사비용과 교통비 숙소비를 제외하여 들어간 비용은 기념품을 사거나 주변 마트에서 개별적으로 먹고 싶은 음식과 간식, 마실 것을 사는 것에 들어갔으며 이는 개인차가 있기에 본인의 지출 계획에 따라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상하이 같은 경우 물가가 비쌌으며 평균적으로 2배에서 3배 정도 물가가 비쌌습니다.

1. 문화 체험 및 기타 개인 관광

평일에는 학교 오후 수업으로 중국 전통 문화 체험을 진행했으며 프로그램으로는 서예, 중국 전지 만들기, 부채 만들기, 가면 만들기, 전통 문양 그림 그리기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금&토&일은 관광지로 가서 여행사의 일정대로 관광 및 문화 체험을 했습니다. 상하이와 황산 두 곳의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상하이

상하이에서는 동방명주 건물을 방문하여 전망대에 올라가 상하이 전경을 보고 사진도 찍고 전망대에서 판매하는 기념품 등을 구경했습니다.(구매도 가능.) 이후 상하이의 “와이탄”이라는 거리로 이동하여 개인 시간을 2시간 정도 가져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하이 빌딩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주변 야경을 구경하고 인근 백화점이나 거리를 관광했습니다. 가이드에 안내에 따라 상하이에 있는 역사적인 건물도 도보로 이동하며 설명을 듣고 구경을 했습니다. 상하이에서의 둘째 날에는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방문하여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종일 디즈니랜드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하이디즈니랜드 입장권이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입장권을 학교 측에서 준비해주셔서 저희 학생들은 별도의 추가 비용 지출 없이 입장하여 디즈니랜드에서 여러 놀이기구를 타고 퍼레이드 및 불꽃축제를 구경했습니다. 집합 시간을 정해 집합 시간 전까지는 자율적으로 디즈니랜드 내 가고 싶은 곳에 가서 개별적인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상하이에서 마지막 날에는 상하이의 유명 거리(전통거리 포함)를 방문하여 주변 상권을 관광했으며 1시간 정도 자율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1. 출국 전 준비해야할 사항(반드시 소지해야할 것 등)

- 여권을 미리 발급해야 하며 유효기간도 6개월 이상 남았는지 반드시 확인
- 위챗, 알리페이, 고덕지도 등 중국 현지에서 사용할 앱을 사전에 다운받고 미리 기본적인 정보를 앱에 입력 완료해 놓을 것.
- 파견 대학 지역에 대한 여러 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정리할 것
- 위안화 환전(한국 돈으로 6만원 정도는 위안화로 환전하여 갖고 갈 것. 낮은 단위의 지폐로

여러 장 챙기기. 10위안, 20위안 단위로. 100위안 지폐는 불필요. 1위안 동전도 50위안 정도는 챙겨갈 것 - 대중교통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함.)

- 출국 당일 수화물로 보낼 짐 가운데 기내 수화물 규정을 확인하여 미리 짐 준비할 때 캐리어와 기내 짐 구분하여 준비하기.
- 수화물로 보낼 캐리어 무게 미리 확인하기. 기본 무료로 보낼 수 있는 무게에서 초과될 경우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 있음.
- 여권용 증명사진 실물 사진을 3장 정도 여유분 준비해서 가져가기.
- 보조배터리 챙겨가기(현지에서 핸드폰으로 소통하는 부분이 많음.)
- vpn 앱 미리 확인하여 다운 받아 놓고 준비할 것.(유료 vpn 가운데에서도 중국 내에서 잘 안되는 vpn이 있으니 여러 정보를 취합 후 좋은 것으로 선택할 것. 로밍해가도 vpn 없으면 실행이 되지 않는 앱이 있을 수 있음)

1. 귀국 준비 시 유의 사항

- 여권
- 이틀 전에 미리 짐 정리하기(빨래 미리 해놓고 캐리어 정리 해놓기)
- 수화물 규정대로 캐리어 정리 필수

1. 건의 사항

중국 현지 대학교 캠퍼스 생활 및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래 학생들과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언어 사용도 증가하고 서로 소통하며 중국에 대한 문화 이해와 더불어 현지 지역에 대한 정보 획득 및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며 추억 또한 많이 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 차기 단기연수 학생을 위한 제언

배우는 자세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문화에 살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지내온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단기어학연수에 가서 매사에 한국의 기준을 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알아간다는 생각을 갖고 단기어학연수를 다녀오면 훨씬 더 좋은 경험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출국 전 미리 단기어학연수를 가기 위한 사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기어학연수 기간 동안 평일에 수업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기에 계획을 미리 짜서 수업 이후 시간에 대해서도 소중히 잘 활용하고 많은 경험을 하고 오면 좋겠습니다.

1. 단기어학연수에 대한 소감 및 평가(*자세히 작성)

이번 단기어학연수는 후회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중국어 실력 향상과 현지 문화 경험을 기대하며 단기어학연수에 도전하였습니다. 현지에 가서 같이 간 학생들과 어울리고 소통하며 조금씩 중국 생활에 적응을 해나가며 수업을 들으니 어색했던 환경과 낯선 사람들이 점차 익숙해졌고 수업에 집중하며 배움에 있어 현지 선생님들과 즐겁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이후에는 주변 음식점과 상권들을 구경하고 음식을 맛보며 현지 문화를 경험을 통해 그들의 생활양식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모습들이 자리 잡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확실히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에 대해 느낄 수 있었고 보다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생활 모습 등을 기준으로 중국의 문화와 생활 환경을 보면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었고 잘못되어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저의 좁은 생각과 제가 경험했던 기준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의 문화적 배경과 생활모습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되고 존중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식당 사람들이나 중국 선생님들과 소통할 때 언어 회화가 잘 안 되어 답답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 점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주었고 중국어를 공부해서 회화 능력을 높여 이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싶다는 계획 또한 구체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생활하며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언어의 어려움 없이 소통을 하게 된다면 그 만큼 저에게는 새로운 더 큰 기회의 장이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지낸 학생들이 모여 같이 간 점도 좋았습니다. 서로의 얘기를 들으며 함께 여러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나가는 과정들이 좋았고 혼자였으면 시도해보지 못했을 경험을 함께였기에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해외에서 서로 의지하고 즐겁게 다니며 단체생활을 통한 사회적 경험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국 단기어학연수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고 이 경험은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와 여러 상황 가운데 폭넓은 시야를 갖게 해줄 수 있는 훌륭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후회 없이 다녀왔고 값진 결과물을 얻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1. 사진 첨부(현지 생활을 소개할 수 있는 사진)



중국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구분	단기어학연수생		
성명	신xx	학번 / 학년	2020xxxx / 4학년
소속	미디어랩스 (단과)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연락처	E-mail		
파견 대학	안휘중의약대학교		
파견 기간	2023년 6월 26일 ~ 2023년 7월 16일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학생으로서 외국 대학에서 수학한 후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붙임 : 1. 단기연수 체험기 1부
2. 기타 첨부 서류(사진)

2023년 7월 21일

파견자 : 신xx (인)

순천향대학교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 단기어학연수 체험기※

1. 인적 사항(전공, 중국어 학습 기간 등)

전공: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중국어 학습 기간: 약 3년. 일상 회화만 능통함.

1. 수학 내용(과목, 수업 내용, 수업 방법, 교수, 과제, 평가, 수업 준비 등)

오전에는 중국 언어 학습, 오후에는 중국 문화 체험을 중점으로 수업을 들었다. 언어 수업에서는 중국어를 소리 내어 읽는 법을 배우고 단어를 익혀 파트너와 간단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하며 발음 교정을 받았다. 중국어를 할 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들께서는 모든 수업 내용을 중국어로 한 번, 영어로 한 번 총 두 번 친절히 설명해 주셨다. 과제는 딱 한 번 내주셨는데 어려운 과제라기보단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풀어볼 수 있는 응용문제 3문항 정도로 부담이 없는 숙제에 가까웠다. 평가는 말하기 시험과 지필고사가 있는데 말하기 시험은 최종 시험 때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화문을 파트너와 외워서 발표하면 된다. 중국어를 잘못하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충분히 다 외울 수 있었다. 지필고사의 경우에는 시험 하루 이틀 전에 시험 범위 복습과 구체적인 출제 유형을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안내를 집중해 듣고 그 내용을 토대로 공부하면 된다.

1. 교통(학교에서 주요 장소로의 교통, 시내 교통 등)

학교 측에서 제공해준 호텔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15분 거리라 특별히 늦잠을 잔 날이 아닌 이상 도보로 등교했다. 여유롭게 등교하기 위해 25분 정도 전에 호텔에서 미리 나오면 좋다. 날이 덥고 다리가 아파 걷기 힘들거나 불가피하게 늦게 일어난 날에는 호텔 앞에서 기본요금 10위안을 내고 택시를 타면 된다. 중국어 회화가 부족한 학생은 도착할 위치를 미리 고덕지도에 띄워 기사님께 보여드리거나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하면 편하다.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나이가 드셔서 핸드폰 화면 속 작은 글씨를 보기 어려우니 도착할 장소의 이름은 미리 알아두고 내비게이션 기능을 쓸 때는 핸드폰 볼륨을 최대한 키워드려야 한다. 한국인이라고 더 비싸게 요금을 받는 경우는 전혀 없었고 현금으로 돈을 지불하면 소수점 돈 정도는 깎아주신다. 기사님들을 정말 다 친절하셨으나 몇몇 분들은 사투리를 심하게 쓰셔서 말을 건네실 때 두 템포 정도 늦게 이해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대단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니고 높은 확률로 앞자리 학생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안내해 주시는 내용이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워낙 발전된 도시다 보니 거리가 먼 유명 관광지를 가지 않는 이상 주변에서 모든 곳이 도보로 이동해 해결할 만하다. 버스는 중국 번호가 없어 위챗페이가 불가능한 관계로 타본 적이 없지만, 현금 2위안을 동전으로 정확히 맞춰 지불하면 탈 수 있다. 지하철은 거리마다 다르지만, 2~4위안이면 충분히 그 지역 내에서 먼 곳에도 갈 수 있고 내부는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무척 깨끗하고 좋았다. 교통수단으로 경제적인 데다가 경험적 측면에서도 한 번쯤은 꼭 타보는 걸 추천한다.

1. 학교 안내(수학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우리 대학과의 차이점, 학교 규모 및 시설, 면학 분위기 등)

안휘중의약대학교는 여러 캠퍼스를 갖고 있다. 신축 캠퍼스는 투어로만 접해보았는데 다양한 약재 표본을 감상할 수 있는 거대한 박물관처럼 이루어져 있었고 학교의 모든 부지가 평지였다.

강의실 내부에는 최신식 기자재가 설비되어 있었고 강의실마다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잘 송출할 수 있도록 여러 대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갖춰져 있었다. 어학연수 동안 주로 사용하는 캠퍼스는 신축 캠퍼스에 비해 작았고 다른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구경하기에는 분위기가 무척 근엄하고 차분해서 크게 둘러보진 못했지만,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 기간이 많이 남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복도에서 조용히 공부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다른 강의실은 에어컨을 틀지 않았으나 한국인 학생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늘 에어컨을 틀어주셨고 기본적으로 휴지와 마실 수 있는 물과 차를 매일 새롭게 준비해 주셨다.

1. 환경(위치, 학교 주변 환경, 기후 등)

학교는 호텔과도 가깝고 대형 백화점과도 가까웠다. 점심시간이 (11:30~14:30) 길어서 대부분 학생들은 걸어서 호텔에 돌아가 쉬거나 주변 백화점에서 밥을 사먹고 쇼핑을 하거나 구경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초반에는 날씨가 한국보다 많이 습하고 비가 와서 매일 땀을 잔뜩 흘리고 습진이 생기기까지 했는데 생각보다 금방 적응이 됐다. 참고로 호텔 에어컨이 아주 빵빵하게 잘 작동된다. 얇은 옷이나 갈아입을 옷을 잘 준비해 오면 좋을 거 같고 호텔 내 세탁은 무료이니 세탁실에서 자주 세탁해 입어도 괜찮다. 지내는 동안 세탁실이 새롭게 단장을 하는 중이라 조금 문제가 있는 구형 세탁기를 써서 옷이 제대로 탈수되지 않아 젖은 옷을 방에 들고 돌아와 옷걸이에 걸고 에어컨 바람으로 말리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떠날 때쯤에는 신형 세탁기와 스팀다리미가 구비된 세탁실이 오픈되면서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다.

1. 숙소(시설, 규칙, 분위기, 유의사항 등)

주로 이용했던 허페이이 숙소는 매우 깨끗하고 편리했다. 조식을 제공했으며 방을 매일 청소를 해주셨고 학교와의 계약으로 인해 화장실 휴지나 수건은 일주일에 한 번 바꿔주셨다. 과자를 다 먹지 못하고 테이블에 올려두었더니 며칠 뒤 버리셨던 적은 있어서 만일을 대비해 소중한 물건을 캐리어 안에 보관하고 자물쇠를 거는 걸 추천한다. 세탁실은 우리가 떠나기 직전에 새로이 오픈하는 바람에 몇 번 못 써본 게 아쉬울 만큼 상당히 좋았다. 방마다 물 두 병과 차를 제공해 주는데 로비에서도 레몬 물과 커피, 차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물맛에 까다롭지 않다면 따로 물을 사서 마실 필요가 없다. 유의할 점은 욕실에서 수건을 발 매트처럼 바닥에 깔면 호텔 직원들이 싫어한다는 점이다.

1. 음식(학교 식당 이용, 학교 주변 식당 현황, 가격 등)

교내식당은 가본 적이 없다. 중국인 친구들 말로는 맛있다고 한다. 사진으로 봤을 때도 괜찮았다. 학교 인근에는 식당이 많고 가격이 다 저렴하기 때문에 매일 다른 가게를 방문해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걸 추천한다. 중국에서 음식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한국에서 외식 한 번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싸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었다. 음료도 저렴해서 한국에서는 돈이 아까워 카페에 가지 않는 편인데 매일같이 필수적으로 한 잔씩 마셨다. 코코(COCO, 都可)나 카왕카(卡旺卡, Come Wonka)라는 곳이 한국의 공차, 백다방 같은 곳 같아서 애용했다. 직원들도 무진장 친절해서 놀랍다. 상하이나 황산과 같은 단체 관광 일정에는 학교 쪽에서 식당을 예약하고 식비도 다 부담해 주셔서 생각보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 없었다. 어디서 먹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지만, 보통 25~35위안 이내로 다 해결했고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은

1위안, 2위안, 4위안짜리도 존재했다.

1.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제도(담당 부서, 담당자, 제공 시설 등)

최대한 현지의 삶을 그대로 경험하고 싶어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별도로 찾아본 적이 없다. 접해보지 못한 전문용어와 같은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는 이상은 말이 잘 통했고 나의 경우에는 한국인인 줄도 잘 못 알아보셨다. 그렇기에 중국 번호를 갖고 있어야지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할 때만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인이라 중국 번호가 없어서 그런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말을 건네면 다들 흔쾌히 도와주셨다. 혼자 해결하지 못할 거 같으면 중국에 계신 어학연수 담당자 선생님께 위챗으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는 게 좋다. 중국분이시지만, 한국말을 잘하셔서 소통에 어려움이 전혀 없으니 겁낼 필요 없다.

1. 소요 경비(현지 물가, 항공료, 공공 요금, 총 소요 경비 등)

현지 물가는 브랜드 의류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한국보다 훨씬 저렴했다. 학생이라 그런지 식비나 교통비가 특히 저렴하게 느껴졌다. 학교에서 제안해 준 예산은 5,000위안(약 90만원)이라 딱 맞춰 현금으로 들고 갔는데 놀 것도 다 놓고 가족들 선물을 조금씩 사고도 절반에 가까운 2,600위안(약 47만 원) 밖에 쓰지 않았다. 물론 나의 경우 중국에 여러 번 와봤고 술을 안 마시는데다가 돈을 절약해 쓰는 편이라 예산을 계획할 때 크게 참고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의외로 돈을 많이 쓴 곳은 데이터로밍인데 인턴으로 회사에서 근무 중이라 업무 회의나 작업을 위해 한국에서 79,000원을 지불하고 통화 무제한에 데이터 25G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결제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닌 이상 그냥 저렴한 유심으로도 충분하니 유심을 사는 걸 추천한다. 다른 학생들은 단돈 몇천 원에 몇십에서 100G까지도 샀다는 이야기를 듣고 데이터로밍을 하길 후회했다. 그래도 비싼 돈을 줘서 그런지 확실히 막힘없이 데이터가 잘 터지는 편이었다. 그런데 데이터로밍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잘되는 건 아니었고 사람마다 다르다. 이걸 유심도 마찬가지였다. 항공료는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530,000원을 납부했고 비자 발급 비용 120,000원이었다. 전에 발급해 둔 비자를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 비자 발급 비용을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1. 문화 체험 및 기타 개인 관광

문화 체험은 서예나 중국 전통 종이공예, 가면 만들기와 같은 것들을 진행했고 손재주가 없는 편인데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어렵지 않게 따라 만들 수 있어 즐거웠다. 개인 관광은 마지막 주 토요일 제외하고는 전부 평일이라 하교 시간 오후 4시 30분부터 통금시간인 오후 10시까지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짧지는 않지만, 인터넷에서 소개해 주는 관광지를 구경하기에는 시간이 늦기도 하고 다소 촉박해서 주로 가까운 백화점이나 야시장을 둘러보며 쇼핑하고 밥을 사 먹기를 반복했다. 멀리 나가기에는 짧을 순 있어도 주변을 구경하기에는 여유롭다. 우리의 경우에는 파견대학의 부원장님께서 마지막 주 토요일 자유시간에도 다른 문화 체험 일정을 마련해주셔서 사실상 근처를 벗어나긴 어려웠다. 놀러 다니기에는 시험이 끝난 마지막 주 금요일이나 자유시간을 주는 토요일이 가장 적합하다. 평일에도 꼭 특별한 일정을 보내고 싶다면 저녁 식사를 생략하고 모든 동선을 택시로 이동해 시간을 단축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기억에 남는 건 백화점 지하에서 농구 교실 수업을 듣고 가장 위층에 있는

완다시네마에서 3D영화를 보고 야경이 아름다운 술잔길(麴街)도 구경하고 시험이 끝나자마자 완다워터파크(万达水乐园)에 간 것이다. 완다워터파크는 특히 재밌었는데 실내 워터파크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한다. 여름에 실내라 덥지도 않고 오전에 가면 줄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큰 놀이기구를 마음껏 타며 놀기 좋았다. 바로 옆에 놀이공원도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 갈 수 없었지만, 재밌어 보였다. 대신 택시를 타고 한참을 나가야 한다. 돌아올 때는 시간이 넉넉하다면 지하철을 타고 돌아와도 좋다. 워터파크는 학생할인과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노는 야간 표가 있다. 대신 학생이라는 걸 입증하기가 꽤나 까다롭다.

1. 출국 전 준비해야 할 사항(반드시 소지해야 할 것 등)

호텔이 좋다 보니 돼지코가 딱히 필요 없었다. 충전할 게 많다면 문어발을 챙기고 햇볕이 무척 뜨겁고 비가 자주 오다 보니 양우산은 필수로 챙겨야 했다. 핸드폰이 잘 안 터질 때를 대비해 소량의 현금을 챙기면 답답한 일이 없다. 개인적으로 현금은 현지에서 사용이 어렵다는 말을 들긴 했으나 현금이 훨씬 편했다. 학생들끼리 돈을 나눠 내기에도 편하고 너무 큰 돈 단위로만 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 좋았다. 대신 잔돈이 많이 생겨 지갑이 약간 무거워질 순 있다. 알리페이로 결제하고 친구들과 돈을 나누려면 환율로 계산하고 아주 복잡하다. 현지 상점에서 거스름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곤 하는데 그래봤자 대부분 다 현금을 갖고 있어 0.2위안 이 정도였고 대부분 깎아주거나 서비스로 대체해 채워주셨다. 택시는 정말 거스름돈이 없을 수도 있으니 알리페이 사용을 권장한다. 여름에 간다면 무조건 찰랑이고 시원한 가벼운 옷으로 챙겨가는 걸 추천한다. 땀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나서 땀으로 옷을 적신 사람들을 보는 일이 흔하다.

1. 귀국 준비 시 유의 사항

개인 건강과 물건을 잘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귀중품을 잃어버렸다. 누가 훔쳐 간 건 아니고 챙길 게 많고 들뜬 마음에 정신이 없다 보니 그런 일이 빈번히 발생하곤 하니 포켓이 많은 가방이나 옷을 입는다면 수고로움을 덜 수 있을 거 같다. 다른 사람들을 보니 수화물은 1.5kg 정도 넘겨도 괜찮고 과자 같은 건 손에 가득 쥐고 올 수 있었다. 캐리어에 노트북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귀중품을 담지 않는 게 좋다. 사라지거나 고장 날 수도 있다.

1. 건의 사항

배운 기간 자체가 다르다 보니 학생들 간의 중국어 수준차가 극심했습니다. 현지 선생님들께서도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많이 고민된다고 계속 이야기하셨기도 하고 수업 진행에도 약간 지장이 갔기에 파견 전 중국어를 배워본 적 없거나 거의 할 줄 모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중국어 학습을 돕는 수업을 개설해 현지에서도 무리 없이 수업 진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보조해 주었으면 합니다.

1. 차기 단기연수 학생을 위한 제언

단기 연수를 지원하기 전 해당 국가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크게 고민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갔으면 같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언어 실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언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해도 상대방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와 타인의 시선에 굴하지 않는 자신감, 긍정적 마음가짐만 있다면 어디에서든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걸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오면서 크게 실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어 실력과 관계없이 다들 잘 지내다 왔습니다. 오히려 좀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현지인 분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을 땐 살짝 주눅들 수 있는데 기죽지 않고 다시 설명해 보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번역기를 총동원해 보면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현지인 분들은 상상 그 이상으로 매우 친절하시니 지레 겁먹지 않아도 되고 다들 배우러 온 거니 어쩌면 중국어를 못하는 건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1. 단기어학연수에 대한 소감 및 평가(*자세히 작성)

그동안 방학은 학기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휴식하는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과장을 보태지 않고 수동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 외에는 하루를 거의 쥐 죽은 듯 잠을 자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부어 방학 때 뭔가를 했던 기억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학은 제게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학년 땐 코로나도 있고 겁이 많은 성격이라 4학년이 다 돼서야 겨우 용기 내 가는 단기 어학연수지만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시간이 남지 않아 너무 아쉽습니다. 그저 다른 나라에 온 것만으로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았던 시간이고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라 생각하니 하루를 후회 없이 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겁과 걱정이 너무 많은 사람은 정말 직접 부딪혀 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파견대학에서 공부하고 현지인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취약한지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자신이 있는지 빠르게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배움을 얻기보다 짧은 여행이 될 거라 생각하며 떠났던 단기 어학연수는 더 넓은 세상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어학연수는 단기에서 그쳤지만, 중국어와 현지 문화를 더욱 깊이있게 공부해 다시 중국에 방문해 오랜 기간을 살아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기 어학연수에서의 모든 게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1. 사진 첨부(현지 생활을 소개할 수 있는 사진)



그림 9 식사 - 다양한 메뉴가 나온다. 따뜻한 물을 마시는 문화가 있다.



그림 10 식사 - 우리를 위해 매번 얼음이나 음료를 제공해 주시려 담당자분들이 노력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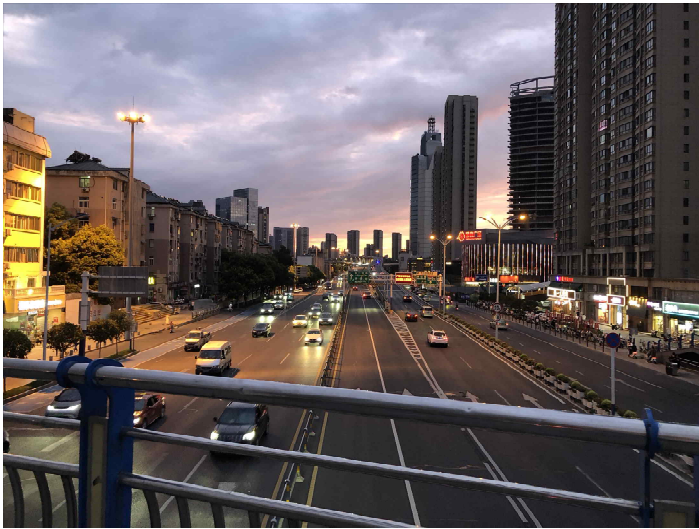


그림 12 학교 주위 - 큰 백화점이 많다.



그림 11 등굣길 - 오토바이가 정말 많다.



그림 13 황산



그림 14 황산



그림 15 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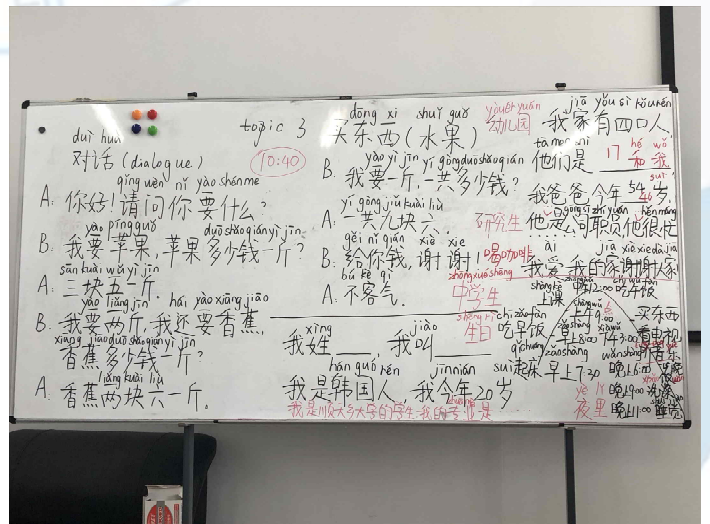


그림 16 시험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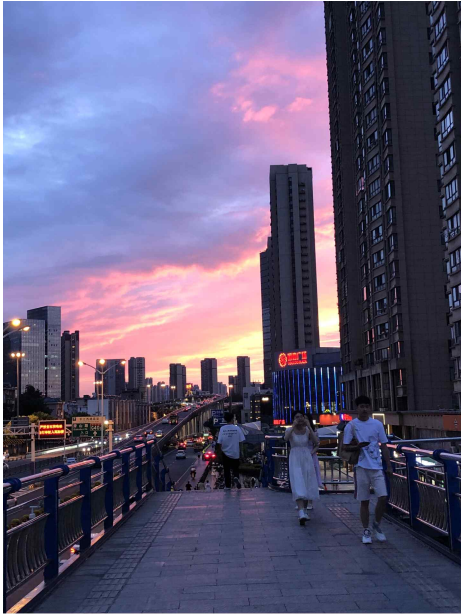


그림 19 학교 옆 백화점 가는 육교



그림 17 술잔길 - 야경이 예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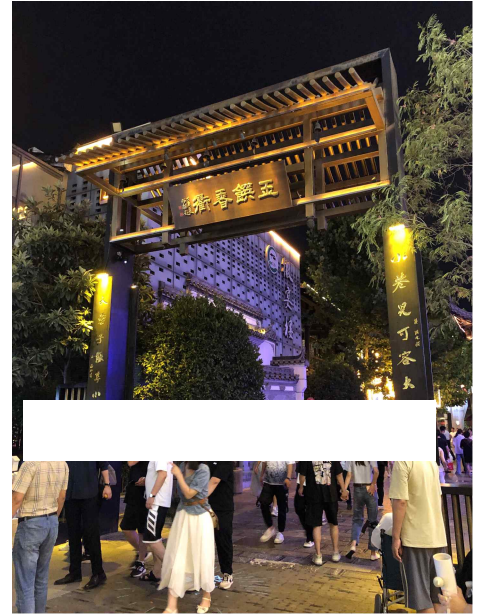


그림 18 술잔길 - 변화가 같다.



그림 21 황산



그림 22 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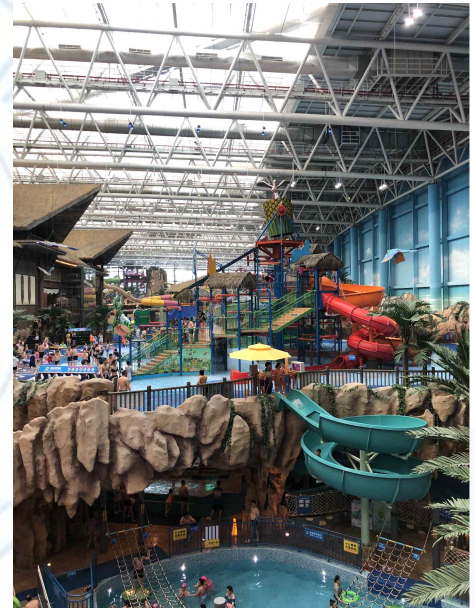


그림 23 완다워터파크 - 사진에는 다 담기지 않을 정도로 크다.

중국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구분	단기어학연수생		
성명	이xx	학번 / 학년	2022xxxx / 2학년
소속	미디어랩스	(단과)대학	영미 학과
연락처	E-mail		
파견 대학	안휘중의약대학교		
파견 기간	2023년 6월 26일 ~ 2023년 7월 16일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학생으로서 외국 대학에서 수학한 후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붙임 : 1. 단기연수 체험기 1부
2. 기타 첨부 서류(사진)

2023년 7월 23일

파견자 : 이xx (인)

순천향대학교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 단기어학연수 체험기※

※ 작성 요령: 글자 크기 12pt, 왼쪽 정렬, 줄 간격 160%. 체험기에 사진을 꼭 첨부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타 사진들은 알집으로 묶어 결과 보고서+체험기 & 설문지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내 사항은 지우고 제출할 것>

1. 인적 사항(전공, 중국어 학습 기간 등)

저는 현재 영미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잠깐 배운 것 외에, 중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운지는 1년 정도 되었습니다. HSK는 2급까지 취득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S-FLEC 중국어반 수강과 중국 티비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하다보니 듣는 귀는 어느 정도 트여있던 상태입니다.

1. 수학 내용(과목, 수업 내용, 수업 방법, 교수, 과제, 평가, 수업 준비 등)

두 선생님께 수업을 들었는데, 한 선생님께서는 말하기 수업을, 다른 한 선생님은 이론 위주의 수업을 하셨습니다. 말하기 수업은 선생님께서 간략한 대본을 적어주시면 자신의 상황을 대입하여 자신에 대한 글을 학생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론 수업은 성조부터 한어병음을 완벽하게 발음하는 방법 등을 매우 꼼꼼하게 배웠습니다. 시험은 평소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 따라가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의 난이도였기 때문에,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교통(학교에서 주요 장소로의 교통, 시내 교통 등)

저는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기엔 조금 번거로움이 있어 주로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 택시는 기본요금이 10위안 (대략 1900원) 정도로 매우 싸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왔던 택시비가 20분 정도 거리에 6천 원 정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름에 갔던 지라 더워서 학교에서 숙소까지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 기본요금 가격이라 부담 없이 이용하기 좋았습니다. 숙소에서는 택시가 매우 잘 잡히고, 학교에서 택시를 타려면 근처 사거리 대로변에 나가야 택시가 잘 잡힙니다. 자세히 보시면 택시 위에 별표가 여러 개 떠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택시 이용객들의 후기라서 별표가 많을수록 친절하신 기사님이라고 합니다. 만약 중국 번호를 발급 받으실 예정이라면 택시 어플 '디디'를 깔고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위치에서 택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해서 탈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 추천 드립니다.

1. 학교 안내(수학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우리 대학과의 차이점, 학교 규모 및 시설, 면학 분위기 등)

학교 시설은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강의실은 조금 작았지만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있다면 우리 학교와 다르게 학교 복도에 학생들이 따로 책상을 구비하여 복도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더운 여름이었음을 고려했을 때, 강의실 외에는 에어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끔씩 교실 문이 잠겨있을 때는 교실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더운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화장실은 조금 오래된 푸세식이었기 때문에, 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조금 도전적 정신이 필요했습니다. 화장실에 휴지는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휴지를 지참하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1. 환경(위치, 학교 주변 환경, 기후 등)

학교 위치는 허페이시의 중심 쪽에 위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큰 번화가들이 학교에서 택시를 타고 대략 10분이 걸릴 정도로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3시간 정도인 긴 점심시간에 갔다 오기 좋았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쯔심천'과 '구쿠 플라자'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정말 가깝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거나 구경하러 가기 좋았습니다.

1. 숙소(시설, 규칙, 분위기, 유의사항 등)

시설이 매우 좋았습니다. 깨끗하고 시원하며 정말 쾌적했습니다. 화장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너무 깨끗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청소 서비스를 일주일에 한 번만 제공해주시기 때문에, 수건이나 화장실 휴지도 일주일에 한 번만 주셨습니다. 따라서 수건을 저희가 따로 세탁해서 사용해야 했는데, 세탁기가 전 호실을 통틀어 단 2대만 있기 때문에 빨래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숙소 와이파이의 위챗을 통해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번호가 필요한데, 카운터 직원 분께 부탁드리면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1. 음식(학교 식당 이용, 학교 주변 식당 현황, 가격 등)

음식은 학교 주변 '쯔심천'이나 '구쿠 플라자'에 식당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점심은 거의 그곳에서 먹었습니다. 쯔심천에서는 6층에 있는 빨간 휘귀 집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대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배불리 먹었는데도 1만 원 초반대가 나왔습니다. 지하 1층에 있는 우육면 집도 맛있었습니다. 메뉴 하나에 대략 5-6천 원 정도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구쿠 플라자에는 지하 1층에 마라탕집이 맛있었습니다. 카페는 쯔심천 1층에 있는 'NAYUKI'와, 정말 중국 어디에든 있는 'COCO', 음료 하나에 거의 10위안을 넘지 않는 '蜜雪冰城'을 추천합니다.

학교 근처 외에 식당을 추천 드리자면, '张胜和小笼汤包(摩尔广场店)'과 '安三胖韩国烤肉(银泰中心二期店)'을 매우 추천합니다. 처음 말씀해드린 곳은 샤오롱바오 가게인데, 가격도 아주 저렴한데 이 지점이 제일 맛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드린 곳은 한식 고기집입니다.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이지만 지금까지 가 본 삼겹살 집 중에 제일 맛있었던 곳으로, 한식이 너무 먹고 싶을 때 이곳을 추천 드립니다.

1.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제도(담당 부서, 담당자, 제공 시설 등)

중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저희를 인솔해주신 중국인 선생님께서 한국어를 정말 잘하셔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때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갔을 때 가이드님께서 설명해주시는 모든 내용을 통역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 소요 경비(현지 물가, 항공료, 공공 요금, 총 소요 경비 등)

항공료와 비자 발급, 보험료 등 학교에 지불해야 하는 경비는 대략 7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 외에 생활비로는 안내해주신 대로 100만 원 가량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정말 이곳저곳 많이 다녔고 택시비도 만만치 않게 든 상황에서, 하루에 배부른 식사 두 끼와 카페를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꼭 갔음에도 결과적으로는 20만 원 정도를 남기고 왔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는 네일아트가 만 원대 초반으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한 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거의 대부분의 물가가 매우 싸지만, 옷과 분위기 좋은 개인 카페만큼은 비쌉니다. 개인 카페는 거의 한국보다도 더 비싼 정도였고, 옷은 마땅히 살 가게도 없을뿐더러 만만치 않게 비싸기 때문에 거의 '타오바오' 같은 온라인 쇼핑몰로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노래방 'KTV'는 조금 많이 비쌌지만 K-POP 노래가 아주 많기 때문에 다같이 즐기며 놀기 좋을 것 같습니다.

1. 문화 체험 및 기타 개인 관광

학교에서 실시하는 문화 체험으로는 상하이와 황산을 갔습니다. 상하이에서는 '동방명주', '와이탄', '디즈니랜드' 등을 다녀왔습니다. 황산에서는 '홍춘 마을'과 '황산'을 등산하고 왔습니다. 상하이에서는 발전된 사회를 느낄 수 있었다면, 황산에서는 옛날 중국의 모습을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 관광으로는 허페이의 '허차이 1972', '술잔 길', '회하로 보행길'에 다녀왔습니다. '허차이 1972'는 중국의 옛날 감옥을 개조하여 카페와 음식점 등이 있는 거리로 만든 곳이었습니다. '술잔 길'은 우리나라의 한옥마을 같이 중국의 옛날 집처럼 생긴 거리였습니다. '회하로 보행길'은 우리나라의 홍대 같은 느낌으로, 구경할 것이 많은 북적인 변화가였습니다. 이 중 가장 추천하는 곳은 '술잔 길'입니다!

1. 출국 전 준비해야할 사항(반드시 소지해야할 것 등)

중국은 물가가 매우 저렴해서 대부분의 물건은 중국에 가서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여름에 간다면 날씨가 정말 덥기 때문에, 손 선풍기나 쿨팩 같이 더위를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을 미리 조금 가져가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매우 덥기 때문입니다. 진통제나 생리통약, 여성용품 등은 한국에서 미리 꼭 사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매주 주말에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기 때문에, 큰 캐리어를 들고 가는 것보다 편리하게 짐을 넣어갈 수 있는 큰 가방을 꼭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갑자기 알리페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상용 현금을 무조건 챙겨 다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00위안 단위의 큰 돈 말고, 10위안이나 50위안 같이 거스름돈을 조금 받을 수 있는 적은 돈이 좋습니다. VPN은 'JLvpn'을 가장 추천합니다. 또한 중국 유심을 사는 것보다는 e심을 사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1. 귀국 준비 시 유의 사항

한국에 가져가기 위해 중국에서 산 음식 중에 반입이 불가능한 것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몰랐지만, 좀 더 간편하고 편한 귀국을 하고 싶다면 '큐패스'를 미리 준비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건의 사항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점심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길었던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거의 3시간이나 되었기 때문에 문화 수업을 들을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매일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금시간이 조금 빨랐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조금 줄이고 문화 수업을 더 빨리 시작하여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개인 시간이 더 늘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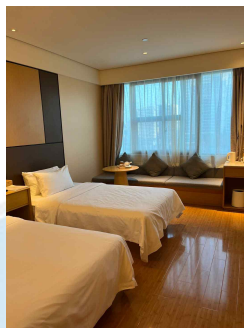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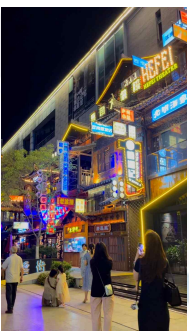
1. 차기 단기연수 학생을 위한 제언

되도록이면 중국 번호를 발급받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위챗과 위챗만 이용하는 식당, 택시 어플, 배달 음식 어플 등 중국 번호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가 매우 많습니다. 저는 위챗만 이용하는 식당에 갔을 때, 휘귀 집이었음에도 시킬 메뉴를 직원 분에게 하나하나 다 말씀 드리며 추가 주문을 할 때도 직원 분을 불러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매우 번거로웠습니다. 또한 정규 수업 프로그램 외에도, 얼마나 단기 어학연수라는 기회를 잘 활용하는가는 본인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곳에 가보고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공부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해보자는 다짐으로 영화관도 갔었고, 동물원도 갔었습니다. 그 덕분에 중국 영화관에는 중국 영화임에도 중국어 자막과 영어 자막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고, 체계적인 우리나라의 동물원과 다르게 널리 펼쳐져있는 공원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동물을 찾아다니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만 체험할 수 있고 이곳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것을 적극 권유합니다.

1. 단기어학연수에 대한 소감 및 평가(*자세히 작성)

단기 어학연수는 3주라는 시간이 정말 짧게 지나갔다고 느껴질 만큼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4주라는 시간이 더 적당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실생활에서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중국어를 활용해보며 저의 중국어 실력을 파악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너무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라면, 상하이와 황산에 갔을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시간을 단체로 보냈기 때문에 자유롭게 구경할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상하이를 정말 기대하고 있었고, 상하이와 황산 또한 제가 직접 찾아보며 다양한 곳을 이곳저곳 다녀보고 싶었던 저에게는 너무나 아쉬운 여행이었습니다. 또한 귀국 하루 전날은 자유 시간으로 잡혀있었는데, 중국 의상도 입어보고 정말 또 다른 경험을 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지만, 일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바람에 하루를 정말 자유롭고 온전하게 보내고 싶었기에 아쉽기도 했습니다.

1. 사진 첨부(현지 생활을 소개할 수 있는 사진)



왼쪽부터 술잔 길 /
안후이중의약대학 / 허차이
1972 / 숙소 호텔

중국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구분	단기어학연수생		
성명	정xx	학번 / 학년	2020xxxx / 3학년
소속	미디어랩스 (단과)대학 중국학과		
연락처	E-mail		
파견 대학	안휘중의약대학교		
파견 기간	2023년 6월26일 ~ 2023년 7월16일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학생으로서 외국 대학에서 수학한 후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붙임 : 1. 단기연수 체험기 1부
2. 기타 첨부 서류(사진)

2023년 7월 22 일

파견자 : 정xx (인)

순천향대학교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 단기어학연수 체험기※

1. 인적 사항(전공, 중국어 학습 기간 등)

저는 중국학과 20학번 정한솔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제 2외국어로 중국어를 배우면서 흥미를 느껴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나서 학원을 다니며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본교에서도 중국학과로 진학을 하여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수학 내용(과목, 수업 내용, 수업 방법, 교수, 과제, 평가, 수업 준비 등)

수업은 말하기 수업과 쓰기 수업이 있었고 두 분의 선생님과 수업을 하였습니다. 말하기 수업과 쓰기 수업을 하루 씩 번갈아가며 1:1 비율로 총 20일동안 10번의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말하기 수업의 내용은 자기소개와 물건을 구입할 때 등의 회화를 배웠습니다. 한 명씩 문장을 외워서 말하기 연습을 하니 빨리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소품까지 준비하셔서 상황극도 진행하였습니다. 쓰기 수업은 성조와 병음 위주로 배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알맞은 성조를 고르는 등의 수업이었습니다.

과제는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 때 배운 내용의 과제여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수업이 시작하기 10분 정도 전에 미리 가서 수업을 준비했는데, 선생님께서 중국어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말하기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시험은 수업시간에 배운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9시부터 시작하여 11시 정도에 끝났습니다. 수업 때 집중해서 배웠다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1. 교통(학교에서 주요 장소로의 교통, 시내 교통 등)

학교와의 거리는 도보15분정도였습니다. 주요 장소로의 교통은 주로 택시를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중국의 택시비는 한국에 비하여 매우 저렴한 편이어서 부담이 되지않았습니다. 상하이 여행이나 황산 여행등의 일정은 버스를 대절하여 이동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중국은 자전거와 스쿠터가 거리에 많이 놓여져있어 일정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가끔 자전거나 스쿠터를 이용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버스나 지하철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1. 학교 안내(수학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우리 대학과의 차이점, 학교 규모 및 시설, 면학 분위기 등)

학교 건물은 조금 낡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어학연수 인원이 14명 정도였기 때문에 작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였습니다. 학교의 규모는 크지만 시설은 좋지않습니다. 또한 중국 학생들은 복도에서 책상을 두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혹시 돌아다니는 것이 방해가 되진 않을까 걱정을 하였습니다. 중국어에 능통한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번역해주고 다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1. 환경(위치, 학교 주변 환경, 기후 등)

중국의 여름은 한국 보다 훨씬 덥고 습했습니다. 체감온도가 44도에 육박하는 온도였기 때문에 손 선풍기나 부채를 들고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미니소 같은 곳에서 붙이는 쿨링팩이 있어 그것을 사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가끔 5도 정도 떨어지는 날씨가 있었는데 그때는 날이

시원했습니다. 미세먼지는 많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중국의 차들이나 스쿠터들은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때도 그냥 가는 경우가 많으니 주위를 살피고 건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쿠터가 인도로 다니는 경우도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도보 3분정도 거리에는 백화점이 있어 점심이나 저녁을 거의 그 곳에서 해결하였습니다. 지하1층부터 7층까지 맛집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중국은 더운 여름에도 뜨거운 물을 마시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싫어한다면 마트나 편의점에서 물을 구입하여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기 때문에 휴지도 챙겨 다니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1. 숙소(시설, 규칙, 분위기, 유의사항 등)

제가 이용했던 숙소는 지호텔이었습니다. 숙소는 매우 청결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와이파이가 되지않아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또한 수건도 일주일에 1번 바꿔주기 때문에 세탁실에서 빨래를 직접 해야했습니다. 쓰레기는 매일 치워주셨습니다. 8시 부터 9시 30분까지는 조식 제공 시간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가기 전 아침을 해결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배달음식을 주문하면 로봇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매우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호텔 직원 분들도 모두 친절하시고, 호의적이었습니다.

1. 음식(학교 식당 이용, 학교 주변 식당 현황, 가격 등)

학교 근처 백화점에는 맛집이 정말 많았습니다. 중국 음식부터 한식, 양식, 일식 등 다양하게 있었고, 저는 날마다 다양하게 이용했습니다. 제가 먹었던 것 중에는 그래도 휘귀가 인당 100위안 정도(한화 약 18000원)는 지불해야해서 가장 비쌌고 나머지는 거의 인당 13~30위안 정도로 아주 저렴하였습니다.

1.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제도(담당 부서, 담당자, 제공 시설 등)

한국에서 온 저희를 2주동안 이끌어주신 황한영 선생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호텔 직원 분들도 매우 친절하고 항상 웃으면서 대해주셨습니다. 여행을 가는 날엔 가이드 분들도 최대한 많은 것을 알려주려고 하였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들으려하였습니다. 식당에서는 한국인인 것을 눈치채고,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하거나 아는 한국어를 말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시켜주었고, 선물이나 서비스 등도 받았습니다.

1. 소요 경비(현지 물가, 항공료, 공공 요금, 총 소요 경비 등)

여학연수를 가기 위한 항공료와 비자, 보험료는 총 68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저는 유심과 이심을 사용했는데 각각 20GB 씩 유심은 25000원 정도하였고, 이심은 13000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생활비로 사용한 돈은 약 70만원 정도로 택시이용, 카페, 기념품 구매, 식사 등 모두 포함된 비용이며 중국은 물가가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구매하는 것에 유의하세요.

1. 문화 체험 및 기타 개인 관광

문화체험은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을 3시간 정도 가지며 그 후에 1시간 30분정도로 이루

어졌습니다.

첫 문화 수업은 다음날이 상하이여행이었기 때문에 상하이 여행 일정에 대하여 알았고, 그 외에는 서예, 전지, 매듭, 그림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있어서 너무 유익하고 재미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문화 체험 선생님께서도 꼼꼼하고 쉽게 알려주신 덕분에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상하이와 황산 여행도 학교에서 벗어나 2박 3일로 진행되었는데, 비가 오는 날도 있었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자유시간에는 1912거리, 야시장, 술잔길, 완상정, 완다광장, 대형마트 구경 등 택시로 10~20분 정도 이동해야하는 거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택시비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되지는 않았습니다.

1. 출국 전 준비해야할 사항(반드시 소지해야할 것 등)

반드시 소지해야 할 것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입니다. 6개월 미만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여권을 재발급 받으셔야합니다. 또한 여권은항상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는 유심입니다. 중국은 와이파이가 중국 번호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유심이나 이심, 로밍 등을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계자 분께 중국 번호를 개통하면 약 7000원 정도에 200GB를 사용할 수 있으니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세번째는 돈 입니다. 알리페이만 등록 하였으나 위챗페이도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현금도 비상용으로 환전을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념품을 많이 구매하실 생각이라면 큰 캐리어를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우산이나 비상약 같은 것들도 챙기면 좋고, 컵밥이나 캔에 들어있는 반찬도 몇 개 챙겨 오시면좋습니다.

1. 귀국 준비 시 유의 사항

보조배터리는 무조건 기내 반입을 해야하고, 수하물 무게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권은 항상 잃어버리지 않게 소지하고있어야합니다.

1. 건의 사항

없습니다.

1. 차기 단기연수 학생을 위한 제언

사실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어학연수에 오기 때문에 뒤쳐진다고 해서 마음을 급히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공부를 하면됩니다. 중국이라고 해서 선입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는 실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중국어를 말하는 걸 부끄러워 하지 말고, 아는 만큼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 지원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수업도 기초를 배우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만 한다면 충분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1. 단기어학연수에 대한 소감 및 평가(*자세히 작성)

중국학과의 학생으로서 중국 단기어학연수에 꼭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합격을 하고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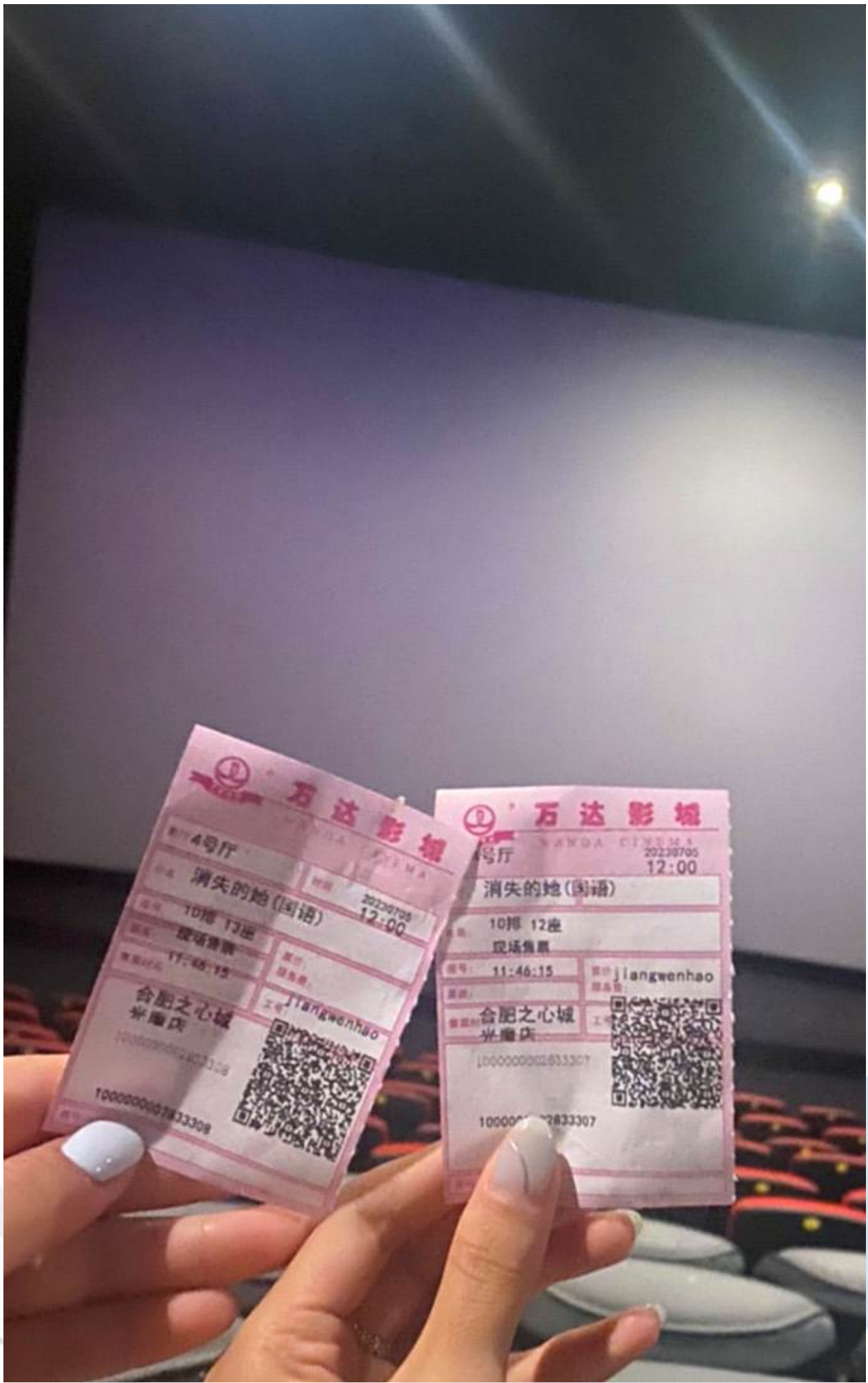
서도 쓰니 정말 기쁩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모두 친절하고 항상 웃으면서 대해주셨기 때문에 즐겁게 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점점 중국에 녹아들고있는 저를 볼 때마다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은 타지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힘들지만 마음 가짐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 연시간이 조금 빠르게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끝 무렵이 되니 더 지내고 싶습니다. 매일 학교 가던 길, 풍경 등이 벌써 정이 들어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하이여행 때는 정말 황홀했습니다. 상하이라는 도시에 꼭 와보고싶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정에 디즈니랜드도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 본 일루미네이션은 잊지못할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황산 여행도 정상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에 너무 부듯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힘을 내어 등산을 한 것도 잊지못할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오래 있어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더 용기를 내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사람들과 어느정도 중국어로 소통을 하는 제 자신을 보니 더 힘을 내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중국 어학연수를지원하면 좋겠습니다.

1. 사진 첨부(현지 생활을 소개할 수 있는 사진)





万达影城
WANDA CINEMA

4号厅
消失的她(国语)
20230705
12:00

10排 13座
现场售票
11:46:15

合肥之心城
光耀店
Jiangwenhao



1000000002833307

万达影城
WANDA CINEMA

4号厅
消失的她(国语)
20230705
12:00

10排 12座
现场售票
11:46:15

合肥之心城
光耀店
Jiangwenhao



1000000002833307

1000000002833307









